



넌 감동이었어

프랑스에 피노 누아와 부르고뉴가 있다면 이탈리아에는 네비올로와 랑게가 있다. 네비올로는 랑게 언덕의 수많은 포도밭과 교감하며 자신이 가진 무한한 섬세함을 드러낸다. 에디터 송원석

저 멀리 알프스가 내려다보이는 랑게 언덕의 네비올로밭.

필 자에게 네비올로(Nebbiolo)는 와인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인 품종이자 도달할 수 없는 품종이다. 와인에 구체적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네비올로를 따라 나서게 되었다. 네비올로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네비올로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를 선택 좋아하기에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지만 그를 놓치고 싶진 않았다. 그 후 네비올로가 준 영감과 감흥은 내 와인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열어주었다.

타닌이 많고 힘이 넘치는 풀보디한 와인을 선사하는 동시에 명확한 산미를 남기는 네비올로는 '안개'를 의미하는 '네비아(Nebbia)'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포도 수확기에 산지에 드리운 안개를 상징한다. 필자에게 네비올로는 그 어원 이상으로 품종이 표현해주는 놀라운 개성과 다양성 속에서 이미 안개처럼 구체화할 수 없는 우리의 영감을 가득 채우는 영적인 품종이다. 영적이라는 표현은 네비올로가 보여주는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타닌의 강력한 뒤에는 형언할 수 없는 우아함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네비올로는 와인이 얼마나 경이롭고, 그러면서도 소탈하고 인간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인생의 스승이다. 네비올로는 그 품격 안에서 소박한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는다. 천상의 품종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소탈함에 기대 자신의 깊이를 표현하는 품종인 것이다. 우아하면서도 거칠고, 거칠면서도 우아하고, 무거우면서도 과하지 않고, 여성적 섬세함이 함께 하지만 여리지 않다.

그런 네비올로가 최상의 표현을 하는 곳, 세계에서 유일한 개성을 지닌 와인을 만드는 곳이 바로 피에몬테에서도 최고의 와인 산지라 불리는 랑게 언덕이다. 필자에게 랑게는 부르고뉴 지방에 버금가는 와인 산지다. 랑게와 네비올로의 조합은 부르고뉴와 피노 누아의 조합이 주는 섬세함과 깊이 그리고 그 이상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랑게 언덕은 유명한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알바를 비롯한 작은 와인 마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곳을 대표하는 중심 마을은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알바다. 알바에서는 13년째 전 세계 와인 바이어들과 저널리스트를 초청하여 매년 피에몬테 최상의 와인을 선보이는 알바 와인 전시회를 열었다. 올해부터는 그 이름이 '네비올로 프리마'로 바뀌었다. 그것은 네비올로가 피에몬테 와인에서 얼마나 중요한 상징인지 잘 드러내준다. 네비올로는 단일 품종 와인을 좋아하는 와인 애호가들에게는 부르고뉴의 피노 누아와 더불어 세계 최고의 포도 품종으로 여겨진다.

랑게의 포도밭 안에 있는 훌륭한 레스토랑 '보르고 안티코'에서 전통적인 와인 농장 프라텔리 바랄레의 농부 세르지오 바랄레 옆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의 이야기는 몇몇 와인 생산자들과 각국 저널리스트들을 침묵케 했다. 와인은 양조장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포도밭에서 만드는 것이다. 네비올로 품종으로 만들어진 와인, 항상 자신을 드러낼 때 수줍음을 동반하는 와인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의 위대함은 네비올로가 심어진 랑게 언덕의 포도밭과의 교감에서 비롯된다. 랑게 언덕에서도 수많은 특화된 포도밭이 있으며 네비올로는 그 개별적인 교감을 통해 자신이 가진 무한한 섬세함을 드러낸다.

네비올로는 내 와인 여정의 방랑벽에 종착점을 만들어주었고 도달할 수 없는 깊이를 통해 내 남은 와인 여정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해주었다. 그럼에도 네비올로가 주는 감동은 일상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예외적인 현실 같은 느낌도 아니었으며, 불멸의 예술품 같은 충격적인 만남과는 거리감이 있었다. 그것은 랑게라는 놀라운 자연과 네비올로라는 걸출한 품종의 절묘한 결합을 일상에서 늘 구현하고 있는 소탈한 농부들의 고된 노동이 함께하는 자연의 소박한 결과물이었다. 피에몬테는 이러한 농부들의 열정이 담긴 감동적인 장소이며 그곳에서 네비올로는 자신의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글 **안준범**(와인바 '쉐조' 대표)